

VISAS

<i>R</i>	<i>I</i>
<i>G</i>	<i>H</i>
<i>T</i>	<i>S</i>

여러분의 소중한 학생회비 납부가 더 나은 연세대학교를 만듭니다!

연세대학교 제 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



PASSPORT

연세대학교 제 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평등하다.’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문장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그 어떤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고 반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모든 '인권의 저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연세대학교 제2회 인권축제를 준비합니다.

연세대학교 제 2회 인권축제는 여전히 혐오와 편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인권 의제를 가시화하고, 그 누구도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학내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공동체가 학내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학내 소수자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하는 자리이자, 서로를 발견하고 연대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제 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학우 분들과 교수님들,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단체들과, 함께하시는 못했지만 가까이 응원해주신 수많은 활동가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우리 세상이 더욱 평등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을 지금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제 2회 인권축제 기획단 드림

서 약 서

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겠습니다.

나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인권 침해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차별없이 우리 모두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이 존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 만난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름 _____ (인)